



한마음선원 본원 혼성합창단의 선법가 공연은 관객들에게 법어를 선사했다.

“둘로 보지 않을 때 그도 보살 나도 보살 되네”



큰스님 가르침, 무대에 펼치려 했을 뿐 ‘한마음음악제’ 무대 뒤 숨은 주인공 원일훈·배운호 감독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불교를 처음 접했습니다. 내가 불교에 대해 처음 느꼈던 따뜻함이 이 무대에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공연의 총감독을 맡은 원일훈 흥익대 교수(사진 오른쪽)는 불자가 아닌 가톨릭 신자다. 그러나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이번 무대의 총감독을 맡아 성공적인 합창제를 완성했다.

그와 함께 무대 연출을 담당할 배운호 중앙대 조교수(사진 왼쪽)도 불자는 아니지만 종교적 편견 없이 이번 공연의 무대 연출을 맡았다. 두 사람은 천 명이 넘는 출연자들이 무대에 오르는 이번 공연을 완벽하게 연출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함께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번 공연의 성공을 한마음선원 신도들에게 돌렸다.

배운호 감독은 “완벽한 무대 연출을 위해서는 무대 밖에서 보이지 않는 흐름이 원활해야 하는데, 이번 공연에서는 프로 무대 못지않게 그런 흐름들이 완벽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원일훈 감독도 “대행 스님의 가르침이 굉장한 가슴에 와 닿았다. 그것이 1년 동안 이 무대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됐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도 힘들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원 감독은 우연한 기회에 대행 스님을 알게 됐다. 본원 신도였던 대학 선배

가 원 감독에게 프로젝트에 함께할 것을 요청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그는 대행 스님의 가르침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원일훈 감독은 “큰스님이 말씀하시는 도리가 근본적인 나를 찾는 것과 통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학문적 흥미를 느꼈지만 점차 타 종교인인 나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배운호 감독도 “종교는 없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세상의 고뇌와 법을 실행하는 스님들을 만나면서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이번 무대에서 가장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소통과 화합, 신도들의 열정이었다. 두 사람의 고민과 신도들의 열정이 성공적인 무대를 만든 것이다.

원일훈 감독은 “영상 중에 이미지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다. 그 때 정말 대행스님의 법문처럼 합창단들이 하늘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느낌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배운호 감독은 “참가자들이 오랜 열정으로 공연을 준비하면서 이미 내재된 디자인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이끌어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원 감독과 배 감독은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모아서 조화로운 무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흡족해했다.

박기범 기자

한마음음악제 11월 12~13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서 성료

선법가를 통해 모든 스님과 신도들이 하나된 한마음선원(주지 혜원) ‘한마음음악제’가 11월 12-13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첫날인 12일에는 외부 인사들을 초청해 1회 공연을 선보였다. 13일에는 국내·외 지원 신도들과 함께 2회에 걸쳐 화합의 장을 펼쳤다. 한마음선원은 이번 합창제 수익금 전액을 한마음선원 후원기관인 사회통합위원회, 조계종 총무원, 서울특별시와 공동명의로 ‘더프라이스’와 ‘뷰티플마인드’를 통해 소외계층지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마음선원은 2001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심장병어린이와 간암환자를 돕기 위한 합창제를 개최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연신 눈물을 흘리는 관객이 많았다. 한 보살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속해서 박수를 치며 앵콜을 연호했다. 손안식 중앙신도회 부회장은 공연장을 나서며 연신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선법가는 한마음선원 선원장 대행 스님의 계승과 범문에 곡을 붙인 것으로 수행의 지침이 되고 근본이 되는 말씀들로 이뤄져 있다. 관객들은 합창단이 부르는 선법가가 마음을 울릴 때마다 합창을 하며 스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12일 대행 스님은 세종문화회관에서 대중과 함께 음악회를 관람했다.

대행 스님은 첫 공연 리셉션에서 “공생 실천이 절실한 때에 그 뜻을 음악으로 전하니 그 울림이 더욱 감동적이었다”며 출연진과 관계자 그리고 동참대중에게 “힘을 모아 소원성취하십시오”라고 축원의 박수를 보냈다.

한마음음악제 제1부는 좌정한 스님의 묵탁 정근과 선원스님들의 합창으로 문을 열었다. 스님들이 부른 ‘자유인의 한마음’과 ‘그 마음 그대로’는 청중에게 고요하면서 웅장하게 공연장에 울려 퍼졌다. 흐트러짐 없는 스님들의 움직임은 관객들로 하여



대행 큰스님이 직접 공연장을 찾았다.



주지 혜원 스님이 청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금 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이어 본원 혼성합창단이 노래했다. 이들은 ‘선법가’와 ‘내가 무슨 걱정을 하랴’를 안성된 화음으로 소화해 혼성 합창단의 매력을 발휘했다.

15개 지원 어머니연합합창단은 ‘한마음으로 돌아가네’와 ‘강 건너 봄이 오듯’을 불러 관객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강 건너 봄이 오듯’에서는 소프라노 성채영 씨가 함께해 선법가의 깊이를 더했다.

제1부 전반부가 선법가 특유의 고요하고 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전했다면 후반부는 발랄하고 역동적인 무대로 신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린이합창단은 울돌과 함께 ‘한마음 어린이’를 합창했다. 어린이의 순수하면서도 열정적인 모습은 때 묻지 않은 부처님 말씀, 선법가의 가르침과도 일치했다. 어린이합창단이 “우리는 한마음 주인공”이라며 합창을 마칠 때는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한참 동안 이어졌다.

푸른 눈, 금발 머리로 한복을 입고 노래한 독일지원의 공연도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이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노래하기 위해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찾았다. 독일 지원 신도들은 제법 유장한 한국말로 ‘푸르게 살라’와 ‘아리랑 연곡’을 불렀다. 금발 머리와 푸른 눈의 독일신도들이 한복을 곁에 차려입은 모습은 이색적이었지만 결코 어색하지 않았다. 특히 대행 스님의

너 나 하나라네

생명 가진 풀 포기 하나도 나 아님 없고
내 생명 아닌 것 없고 내 모습 아닌 것 없어
수 억겁 세월을 거쳐 오면서
그런 출도 몰랐던 내 모습이
상대의 모습 속에 들어 있었네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둘로 보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 되어
그 사람도 보살이 되고 나도 보살 되네
-선법가 중

대행 스님 범문·계승 깨달음의 노래로 울려 퍼져 1만여 청중 환호 갈채

가르침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선법가를 열창하는 그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숙연하게 할 정도였다.

제1부 행사의 마지막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독일지원의 공연도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이화첼리는 2004년 창단 후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음악회를 여러 차례 진행하며 따뜻한 마음을 사회에 실천해 온 팀이다.

소프라노 이준혜와 테너 이승묵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넬라판타지아’를 불러 많은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시각장애인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 씨는 이화첼리와 함께 영화 시네마 천국 중 ‘러브’ 테마와 ‘리베르 탱고’를 연주했다. 앞을 보지 못하지만 가슴으로 음악을 느끼며 연주하는 그의 모습은 그 자체가 음악이고 예술이었다.

한마음선원 청년회는 가장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음악제의 절정을 장식했다. 탭 댄스로 구성된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서막’은 청년회가 그동안 이 무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알 수 있었다. 청년회원들의 공연은 그 어떤 브로드웨이 뮤지컬보다 강한 전율을 느끼게 했다. 청년회는 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룹 ‘아바’의 히트곡을 열창해 관객의 흥을 불러일으켰다.

청년회가 역동적인 무대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하트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와 선원 스님들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음을 울리는 연주로 청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하트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 전하는 ‘오버 더 레인보우’와 ‘공심 공체 돌아온 노래’는 청중들의 가슴에 와 닿았다.

특히 하트시각장애인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무대 뒤에 있던 선원 스님들이 손에 연꽃등을 들고 등장했다. 스님들은 어두운 무대 위를 밝게 비추며 시각 장애인 연주자들 옆에 서서 그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노래를 마친 뒤 함께 퇴장했다. 시각 장애인 연주자들은 연꽃등을 들고 있는 스님들의 인도에 따라 차분하게 무대를 벗어났다. 그 순간 객석에 있던 청중들은 모두 육체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던 대행 스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되새겼다.

이어서 모든 참가자들이 무대에 올라 ‘모란 것을 둥글게 쓸 줄 알아야 자유인이 된다’와 ‘너, 나 하나라네’, ‘돌장승 우는 소식’ 등을 열창했다.

모든 공연이 끝난 뒤 주지 혜원 스님이 무대에 올라 “잘 보냈는지요.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음악회는 막을 내렸다.

글=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한마음음악제에 참석한 신도와 내빈들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한 장면을 선보인 청년회는 이날 가장 역동적인 무대를 연출했다.

모난 것을 둥글게 쓸 줄 알아야 자유인



맑고 순수한 어린이 합창단의 모습은 있는 그대로 대행 스님의 법과 일치한다.



해외회원 120명 신도들은 서투른 한국말이지만 최선을 다해 선법가를 불렀다.



“한 순간 놓아버려야 한다는 것 깨달아”

독일에서 10시간 날아와
큰스님 은혜 갚으려 노래
선법가로 世界一花 펼쳐

공연에서 45명의 독일지원 합창단이 한복까지 차려입고 열창하는 모습에 청중들은 가슴 깊은 환희심을 느꼈다. 독일지원 참가자들은 음악제를 통해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불자로서 바르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모리츠 에플레(17)는 “내 실수를 보여주는 것 같아 힘들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믿고, 내 마음이 노래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알버트 랑엔지펜스(19)도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마음을 모으고 ‘관(觀)’을 하려고 노력했다. 공연이 시작되자 긴장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모든 것이 열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독일과 한국은 지구 반대편이지만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고 있었기에 세종문화회관의 큰 무대도 이들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았다.

독일지원 학생들은 수업이 없는 주말이면 선원에 모여 몇 시간씩 연습에 매진했다. 그리고 합창제 무대에 올라 청중들에게 선법가를 전했지만, 정작 그 무대를 통해 가장 많은 것을 얻은 것은 독일지원 학생들이었다.

모리츠는 “나는 한 개인에 불과하지만 합창을 통해 전체가 하나 되고, 전체의 역량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

다. 알버트는 “한 순간 놓아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모리츠의 동생 하나 에플레는 “무대 위에서 마음을 모으고 합창했던 것을 가슴 깊이 간직할 것이다. 마음을 모으는 공부를 꾸준히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허락을 얻어 이번 합창제에 참가했다. 공부만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합창제는 이번뿐이라 꼭 참석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연습에 임했다.

모리츠는 “큰스님 법을 통해 철학이나 학문을 배울 때 모든 것이 결국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큰스님의 가르침은 항상 나를 깊은 세계로 이끌어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알버트는 불교를 접하게 되면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한다. 깊은 마음을 갖고 불자로서 살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에릭 비벤(20)은 불교를 통해 세상 만물에 대한 존중을 배우고 있다. 그는 “불교에서 우주와 모든 것에 대한 존중을 말하는데 살면서 그 가르침이 맞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나도 사람이나 사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독일지원장 혜진 스님은 “아이들이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마음 모으는 법을 알아가는 것 같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불교를 다양한 학문과 접목시켜 세계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스님들의 합창은 웅장하면서도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사진제공=한마음저널 편집실

“박수 치느라 어깨가 아플 지경이었다”

1만여 관객 울린 감동의 물결 공연이 끝난 뒤 관객들은 감동이 쉽게 가라앉지 않은 듯 환희심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많은 신도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공연 후 관객들의 반응을 모아봤다.

▶손안식 중앙신도회 부회장

“감격! 감격! 또 감격이다. 정말 감동적인 무대였다.”

▶김영숙 보살

“공연 후 눈물을 흘렸다. 우주 법계에 다 통했을 것이다. 감동적이었다.”

▶이계진 前 국회의원

“분열된 우리 사회에 한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메시지였다.”

▶광명선원 청고 스님

“음악제에 안 온 사람들 다 후회할 것이다.”



사진제공=한마음저널 편집실

시각장애인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 씨가 이화첼리와 함께 연주를 하고있다.



황병기 명인(사진 왼쪽)의 연주에 순간 객석은 숨소리조차 멈췄다. 사진제공=한마음저널 편집실